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탁 과제	영주시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 정책 수립 용역	장민영
	백제형 한옥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신치후
	합천군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사업	심경미
	김해 고도 지정 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	김종범
	제2차 옥외광고 종합계획 수립 연구	김용국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민간 건축물 매입·활용 기준 수립용역	염철호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규철

수탁과제

❶ 영주시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 정책 수립 용역

영주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가흥 신도시 중심의 성장으로 인구와 도시 기능이 편중되면서, 영주동, 상·하망동, 휴천동 등 원도심 일대에서는 인구 유출과 생활 여건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원도심의 빈집 증가, 노후주택 확산,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이어지며 주거환경의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도심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편적인 물리적 정비나 개별 사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 생애주기를 고려한 ‘스마트 축소’ 관점의 중장기적 공간관리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영주시 원도심의 생활권별 주거환경 특성과 주민수요를 분석하여 주거지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실행 가능한 주거지정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AI 기반 빈집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생활 인구 분석, 주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FGI) 등을 병행하여 원도심의 쇠퇴 양상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정비가 시급한 우선순위 지역을 도출한다. 나아가 각 생활권의 잠재력과 주민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정비 방식에서 벗어난 맞춤형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복지 기반의 공공주도형 정비모델, 중앙정부 국비지원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연계모델, 민간주도-공공지원형 소규모 주거지 정비모델 등 장소 맞춤형 ‘영주형 주거지 정비모델’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단기적인 환경 개선을 넘어, 기존 거주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이탈을 방지하고, 청년·귀촌인 등 새로운 생활인구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영주시가 안전하고 활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민영

❷ 백제형 한옥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로서 많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타 고도에 비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유산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최근 공주 공산성 일대에 한옥 스테이가 대거 조성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 회복은 공주, 부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백제 고도로서의 이미지 회복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옥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면모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소멸되어 가는 도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에는 ‘백제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백제유산(1탑 1금당 배치, 꺾음 팔작지붕, 연꽃 문양 수막새, 발굴 기와 등)과 충남 전통가옥(‘ㅁ’자·‘ㄱ’자 배치, 8~10척 주간, 누마루, 건넌방 등)의 건축 요소를 분석하여, LDK형 평면, 쉼터, 모듈화 등 현대적 공간 요소를 반영한 설계 원칙·구조·경관 기준을 정립하였다. 백제 디자인 요소로는 1동 2실형 평면, 회랑(복도), 천두식 구조(기둥과 보의 겹걸 방식), 중층형 구조, 어미고주(내부 기둥), 꺾음 팔작지붕, 회색 기와 및 치미, 완만한 처마 곡선, 백제 문양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층·복층·혼합구조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10종(주택형 4종, 주택외형 6종)을 표준설계도서로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표준설계도서는 신한옥(한옥 R&D 공법) 기술을 적용하여 목공사, 지붕공사 등 주요 공사 항목에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기존 전통한옥에서 나타나는 취약 부분을 보완하였다. 또한 주택 외에 상업, 숙박, 업무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한옥의 기능성과 경제적 활용성을 확장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백제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및 신규 한옥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여 다양한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백제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충남도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할 수 있다.

신치후

❸ 합천군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연구사업

고대 역사문화권 문화유산의 가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6월 제정되었다. 국가가 수립하는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각 지자체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계획의 종합적 접근을 위해 마스터플랜 성격의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을 권장하였다.

합천군은 가야의 한 나라인 다라국의 고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 대량국, 초팔국, 사이기국 등으로 불렸던 여러 소국이 합천군 내에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합천군 내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와 관련한 다수의 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정·비지정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역사문화유산을 비롯해 합천군 역사문화환경의 가치를 고려하여 마을 및 도심지역이 연계되는 정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합천군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간 관계 및 추진단계를 고려하여 향후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의 종합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합천군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합천군의 고대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이를 널리 알려 지역의 문화 발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고, 체계적인 정비시행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경미

④ 김해 고도 지정 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

김해시는 수로왕 건국 이래 가락국·금관가야의 도움 으로서 독창적인 철기문화와 해상 교역을 발전시킨 역사 도시이다. 대성동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공인받았으나, 신라·백제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고도 정책 체계 속에서 김해는 오랫동안 제도적 관리의 공백 지대로 남아 있었다. 급격한 도시화로 유적과 현대 시가지가 혼재한 결과, 개별 문화유산을 점(點) 단위로 보호하는 방식만으로는 역사도시 경관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웠고, 각종 개발 규제와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2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야권 고도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이제 김해의 역사적 위상을 국가유산청 소관 법정계획의 틀 안에서 제도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김해시의 의뢰로 수행하는 ‘김해 고도 지정 타당성 조사’로서, 「고도육성법」에 근거해 역사도시 경관의 보존·향상, 매장유산을 포함한 잠재적 문화유산 분포와 보존 잠재력 파악, 고대 수도로서 김해 도시 골격의 회복 방향 설정, 도시 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주민 생활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봉황동·대성동, 양동리·유하동, 예안리 등 국가 지정유산을 중심으로 핵심 권역 설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도 지정 지구(안)를 마련하여 보존·육성 범위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의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연계한 단계별·권역별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2026년에는 국가유산청 및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등 고도 지정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 설문조사·간담회·공청회와 전국 단위 ‘고도 김해’ 인식조사를 통해 주민·전문가·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해가 대한민국 고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야권을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고도 육성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종범

⑤ 제2차 옥외광고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근 옥외광고 분야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 도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기후 위기와 재난 안전 이슈, 지역균형발전 등 다층적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제1차 옥외광고 종합계획(2021~2025)’이 불법 광고물 정비와 안전관리 강화, 일부 신매체 도입에서 성과를 보였음에도, 현장의 행정역량 격차, 기술·산업 환경 변화 속도를 행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발전기금 운용의 지역적 편차, 디지털 전환 준비 부족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2026~2030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법정계획 수립 연구이다. 특히 옥외광고가 단순한 광고매체를 넘어 지역경제·도시경관·안전·문화와 교차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산업·행정·기술·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정립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는 지자체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산·학·관 이해관계자 정책 수요 조사, 산업진흥·광고물 관리·법제 개선 분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그리고 학·협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행 제도와 현장의 괴리, 기술 도입의 한계, 인력·재정 기반 부족, 지역 간 격차, 공공성·산업성 간 균형 미흡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국가 옥외광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 고도화’, ‘도시미관·안전·문화가치를 높이는 공공 매체로서의 역할 확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지역 기반의 균형 있는 옥외광고 환경 조성’,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체계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 탐지, 안전·경관 기준의 고도화, 친환경·순환 경제 체계로의 전환, 디지털 미디어 경관 및 K-컬처 연계, 지역 특성 기반의 옥외광고 정책,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AI 기반의 행정 시스템 개선 등은 장기적으로 옥외광고를 도시공간 운영의 중요한 공공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 흐름을 국가 계획 차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옥외광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행정·시민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옥외광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김용국

⑥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민간 건축물 매입·활용 기준 수립용역

세무서, 경찰서,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청, 통계청 등 국가 청사는 국가의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형무소, 군사시설, 연구시설 등 일부 특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청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가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집중적으로 조성된 국가청사들이 일시에 노후화하면서 기존 청사의 재건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 아울러 국가청사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조성 과 관련한 제도와 절차들이 강화되면서 청사 신축 결정부터 준공까지 5년 내외의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한 정책 추진과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기 수요 반영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지방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의 오피스 공실률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장방안’을 통해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 악화 해소를 위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 등 통합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휴 부동산을 정부가 매입하여 국가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정책은 신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청사를 확보하는 재정적 효과와 함께 침체된 민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기간도 단축하여 행정 및 정책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처 신규 신축사업 및 정책목적시설 등에 대한 신축·유연 대응방안으로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유휴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단기준 및 실무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및 그 밖의 다양한 민간 건축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건축물의 매입·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통·복합 개발 등 유휴 민간 자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염철호

⑦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고 한옥의 보급·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한옥 공모전 등 한옥 홍보, 한옥 관련 기술 개발 및 건축 기준 마련,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 한옥 중심의 관련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었고, 지자체에서는 건축자산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 등을 통해 건축자산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등록,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한옥 건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 제4조에서는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이어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이 연구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간 추진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을 진단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실효적인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규철

포럼 및 세미나

auri 소식
—
Vol. 60
Winter 2025

제2, 3차 CPTED 토론회 ‘한국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개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30주년을 맞아 전국 권역별 순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차 토론회는 10월 31일(금) 청주 오스코 중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청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11월 28일(금) 대구 경북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에서 대구·경북권역 3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두 행사 모두 ‘한국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각 지역별 CPTED 현안과 향후 필요한 정책 방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차 토론회는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부성 건축성능원 이사장, 성기용 한국셉테드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생활환경 전반에서 CPTED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CPTED 개념 및 방향성 정립’을, 마지막으로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K-CPTED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실행체계 구축’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박종기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유인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연지 이음파트너스 상무가 참여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제도화 및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3차 토론회는 CPTED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행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원 내 발족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TF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통합적 생활안전 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정책 추진 방향과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본부장은 ‘민간협력기반 치안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K-CPTED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산·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간의 CPTED 정책을 성찰하고, 여성·사회적 약자 보호, 지자체 추진 역량 제고, 자치경찰제 확대와 연계한 CPTED 활성화 등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였다.



2025 노후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신정훈·이재관 국회의원 주최, 국토연구원 도시건축연구본부와 건축공간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11월 6일(목)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노후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부청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으로, 국회·정부·연구기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행사는 신정훈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노후 정부청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가 '정부청사 유지관리 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 김영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정부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임현성 공간연구소 울림 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사 성능평가와 유지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운영 실태와 개선 경험을 공유하였다.

발표 후에는 제해성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영훈 중앙대학교 교수, 민현준 잘그린 건축연구소 소장, 민경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가시획과 과장 등이 참여하여 정부청사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별·부처별 실질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1월 11일(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션 1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안전정책의 특성과 방향'을 주제로 보행자 중심의 도시전략과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사례를 다루었다. 먼저 페드로 오멤즈 고베야(Pedro Homem de Gouveia) 폴리스 네트워크(POLIS Network) 선임정책자문관이 '안전한 거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이 '어린이 보행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게임 활용 전략'을 소개하며 교육 기반의 안전 향상 방안을 설명하였다.

세션 2는 '초고령사회와 포용도시 관점에서의 보행안전 정책'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도시정책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앤드류 롬바르디(Andrew Lombardi) OECD 정책분석관은 '보행안전 중심의 연령통합도시 실천 전략'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 설계의 실천적 관점을 소개하였다. 이어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주안점'을 발표하였다.

세션 3에서는 '보행안전을 위한 실천 사례와 활성화 전략'이 다뤄졌다. 쿠츠나 히로키(Kutsuna Hiroki) 이디자인(E-DESIGN) 대표이사는 '오사카 사례를 통해 본 도로공간 재편의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고령보행자 사고 실태 및 교통 안전 예방 대책'을 통해 국내 보행사고의 현황과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행안전 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 방안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2025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사는 곳 너머, 모든 아이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개최



2025 AURI 주거정책포럼 ‘살기 위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 공간으로: 청년 주거의 현재와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5일(화) 그랜드센트럴에서 ‘2025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는 곳 너머, 모든 아이를 위한 건축·도시공간’이라는 주제로,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발표는 강현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근린 환경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공간의 과제’를 주제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근린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성주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통합돌봄 실현을 향한 시도’를, 세 번째 발표는 이우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모든 세대를 품는 아동친화 도시·지역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지성 정립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BU 리더, 정병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L&D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아동 친화적 도시의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확보,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의 방향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6일(수) KT&G 상상플래닛 커넥트홀에서 ‘2025 AURI 주거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살기 위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 공간으로: 청년 주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청년 주거의 현황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정책실무자가 함께 정책 과제와 실행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행사는 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청년 주거 여건과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최우람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맡아 ‘전남 청년 주거정책 추진방향: 민원주택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광성 아이부키 대표가 ‘청년의 삶을 담은 주거복합플랫폼으로서의 사회주택’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동현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과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해 청년 주거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적용을 위한 쟁점 및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제10차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 ‘고령자 지역사회 돌봄과 계속거주(AIP)를 위한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8일(금) 성흥타워 드리움 스카이하얌에서 ‘제10차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네트워크’는 지역발전연구기관과 함께 건축 및 도시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지역 건축도시정책연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해왔다.

올해 행사는 ‘고령자 지역사회 돌봄과 계속거주(AIP)를 위한 건축·도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주거·돌봄 연계 및 공간·도시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고은주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지역사회 주거통합돌봄의 가능성(마포 케어안심주택 사례를 중심으로)’을 발표하며 현장 사례 기반의 운영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를 위한 계획-경기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계속거주(AIP)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종합토론은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고 김윤희 중앙구 복지정책과 과장, 변나향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상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기반과 사무관,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과장, 한지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고령자 돌봄의 지역사회 연계, 주거복지시설과 도시공간의 역할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적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5 녹색건축한마당 녹색건축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며, 건축공간연구원 등 여섯 개 기관이 후원한 '2025 녹색건축한마당'이 열렸으며, 건축공간연구원의 녹색건축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녹색건축한마당은 'Build Green, Live Green: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를 주제로, 12월 4일(목)과 5일(금) 양일간 서울 드래곤시티 티호텔에서 진행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4일(목) 드래곤시티 호텔 한라홀3에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초청 녹색건축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녹색건축 정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책토론회는 인사말 이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이 '정부-지자체 녹색건축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오병철 광주광역시 녹색건축센터장이 '광주광역시 녹색건축 정책 추진현황 및 현안'을, 문현석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장이 '서울특별시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오윤택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을 비롯해 문현석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장, 이윤희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장, 오병철 광주광역시 녹색건축센터장, 박지영 인하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지자체 협업 체계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실천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초청 세미나 '공공건축에 대한 태도'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2월 2일(화)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공공건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건축에 대한 태도'를 주제로, 공공건축을 둘러싼 오늘의 과제를 젊은 건축가들의 실천과 시각을 통해 조명하고 일상 공간 속 공공성과 공공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이주경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3개 팀의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표에서는 김선형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가 자신의 작품을 중심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으며, 이창규·강정윤 에이루트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와 홍진표·정이삭 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가 각자의 작품을 소개하며 공공건축을 대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은 전숙희 와이즈건축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자와 김수현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토론에서는 공공건축물을 넘어 계단·복도·외부 공간, 민간 건축물의 로비와 진입부 등 일상 속 작은 공간에도 시민을 배려하는 태도가 담긴다면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민간 건축과 공공건축의 상호 보완적 관계, 인구감소와 도시 축소에 대응하는 리모델링·수선 전략, 지역성과 보편성이 공존하는 공공건축의 방향 등 한국 건축의 정체성과 향후 공공건축 정책 과제에 관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도시재생과 어촌재생: 지역의 생활·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0일(수)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10회 도시재생한마당과 연계하여 '2025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도시재생과 어촌재생: 지역의 생활·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발표에서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마을재생센터장은 '지역의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정책동향'을 소개하며 재생정책의 협력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한지숙 협동조합 문화발전소공감 사무국장이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동해 어대노 마을보건실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 박진영 보탬플러스 협동조합 대표는 '작은 경제거점의 연대와 지역경제 네트워크 형성-충주 관아골 도시재생사업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례'를, 박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기획처 차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성과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은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강나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홍근형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과장,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향자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가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도시와 어촌의 재생이 각 지역의 생활·경제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민관협력 체계 구축, 중앙-지방 간 역할 조정,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향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컨퍼런스 '생활안전의 구조적 해법 : 공간데이터와 현장중심의 CPTED 사례'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경찰청은 12월 16일(화) 경찰청 본청에서 '2025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생활안전의 구조적 해법 : 공간데이터와 현장중심의 CPTED 사례'를 주제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안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주요 연구성과 및 사업성과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안익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올해 수행한 '물리환경이 112 신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발표하였다. 112 신고와 범죄 발생의 공간적 분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계학습 기반 예측을 통해 물리환경으로 112 신고 발생 분포를 예측하며, 공간정보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어진 사업성과 발표에서는 고대운 부산사하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사가 '빈집 및 외국인 관광객 대응을 위한 2025 감천문화마을 CPTED 사업'을, 권영순 강원 원주경찰서 경위가 '황폐화된 성매매 집결지, 학성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강중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사가 '합성1동 스마트 CPTED 사업'을 각각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은 성기용 한국셉테드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성과 발제자 3인과 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지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사무관,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장,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공간데이터 기반 CPTED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의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2025 AURI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7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 석·박사과정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건축·도시·조경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7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동연구 수행, 논문작성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참가자	연구주제
김지현	도시공간 미디어파사드의 시각정보 전달 구조와 시민인식
송영재	서울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용도혼합양상의 영향요인 탐구: 토지이용 점데이터를 중심으로
김희수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의 격차 분석: 읍, 면, 동 지역을 중심으로
김은솔	농촌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민 수용성 결정 요인 연구: 질차적 정의를 중심으로 한 질적 비교 분석
차영원	홍수 취약성과 밀집 도시 지역의 건축물 특성에 따른 홍수 노출 평가에 대한 연구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조호선	가상환경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환경에서의 보행자 안전인식과 간격 수용 분석



2025 제4회 AURI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8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 제4회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연구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올해는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소속 학부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연구원 견학 및 소개, 현직자 진로 멘토링으로 구성되었다.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공간AI·빅데이터본부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연구 사업을 설명하였다. 현직자 멘토링에는 변기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준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연구 직무 관련 멘토링을 진행하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학부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도시 분야 대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건축·도시공학 전공 학부생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 인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